

전원마을 '쓰레기 전쟁'

광주 북구 등촌 주민들 봉투 들고 출근 도심에 버려

광주 번두리 한 전원마을 주민들이 쓰레기를 출근차량에 실어 도심 직장까지 내다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쓰레기 전쟁'을 6개월 넘게 치르고 있다.



26일 광주시 북구 등촌마을 한 주민이 쓰레기차가 많아 버리지 못한 쓰레기를 보며 한숨 짓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북구 청풍동 등촌마을 75세대 주민들은 요즘 광주 시내 각 구청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골고루 구입한다. 마을 진입로의 너비가 3m 밖에 되지 않아 쓰레기 수거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까닭에 집집이 쓰레기를 모아 자신들이 다니는 직장의 배출장소로 실어나르기 위해서다. 올 초까지만 해도 이 마을 주민들은 300여m 떨어진 마을 입구 주택가 한쪽에 일반 쓰레기를 담은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등을 버려왔다. 이곳에 모아두면 청소차가 와서 요일별로 수거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마을에 전원주택이 늘면서 쓰레기 양도 함께 많아지자 사정이 달라졌다. 동구 밖 주택가 주민들이 고양이 가 쓰레기 봉투를 물어뜯고 냄새도 지독하다며 쓰레기 하차장을 없애버린 것이다.

길 좁아 수거차 진입 못해 동구 밖 하차장 마저 폐쇄

등촌마을 주민들이 도심 직장의 쓰레기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들은 또 탑수기를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시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고역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시내에 직장이 있는 주민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원주민은 대부분 마른 쓰레기는 태우고, 음식물 쓰레기는 밭이나 나무 밑에 묻는 '불법 행위'를 남몰래 계속하고 있다. 마을 주민 김모(여·46)씨는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소각·매립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구청에서 손수레라도 보내서 쓰레기를 제때 처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 마을이 쓰레기차가 들어갈 수 없어 큰 도로변에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쓰레기 처리업체와 상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은 일반·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孝 CCTV'가 사기범 잡았다

장흥 보건소 직원 사칭 사기 50대 영장

고향집 부모를 위해 자녀들이 설치한 CCTV에 '보건소 직원 사칭 사기범'이 걸려들었다. 장흥경찰은 26일 보건소 직원을 사칭해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돈을 뜯어온 김모(53·북포 용당동)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장흥군 장평면 임리 이모(여·80)씨

의 집에 찾아가 "장흥 보건소 직원이고, 먼 친척별 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20만원을 가로챈 등 장흥·강진·영암 등지를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160여 만원을 갠 혐의다. 김씨는 이씨 자녀들이 집안에 설치한 CCTV에 얼굴이 찍히는 바람에 붙잡혔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고흥소록도병원 수련회 교회 신도 35명 식중독

고흥군 보건소는 26일 "고흥군 소록도 병원에서 자원봉사와 수련회를 갔던 부산시 사하구 A교회 신도 90여명 중 35명이 설사와 복통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고흥으로 오던 관광버스 안에서 신도들이 준비한 김밥을 함께 나눠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가건물을 채취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고교생들 절도사건에도 끄떡없는 장성 '무인가게'



장성군 북하면 신촌마을 주민들이 '무인가게'에 둘러앉아 정담을 나누고 있다.

/장성=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주민들끼리 잘 할테니 지켜만 보세요"

"이제는 끄떡없어요. 마을 주민들끼리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켜봐 줘요" 한다. 장성군 북하면 신촌마을 사람들은 26일 경찰이 동네 주민의 양심을 자처하던 '무인가게'를 털었던 고교생 절도범을 붙잡았다고 알려왔으나, 오히려 선처를 호소하는 등 덩달한 반응을 보였다. '무인가게'가 문을 연 것은 지난 2005년 5월. 이장 박창열(48)씨가 마을 구관장이 적자로 문을 닫아 생필품 구입이 어려워지자 사비 500만원을 들여 마련했던 것이다. 무인가게는 하지만 언론매체를 통해 외부로 알려지면서 하나 둘씩 물건이 없어지는 등 지난해 10월

술·담배 흡친 7명 경찰에 선처 호소 월 20만원 흑자도

까지 모두 2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결국,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CC TV를 설치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우리 마을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며 몇 차례 회의 끝에 설치 20일만인 11월 20일에 CC TV를 다시 떼었다. 이후 물건이 손을 대는 불미스런 일들이 없어졌다. 매출도 한 달 평균 150~200만원이나 올라 15~20만원의 이익도 기록했다.

한때 발길을 끊었던 외지인들도 매주 20여 명씩 몰려왔다. 그러던 중 무인가게 털이범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온 것이다. 장성경찰에 따르면 이 마을 친구집에 놀러온 고등학생 7명이 지난해 10월 한 달간 14차례에 걸쳐 술·담배·과자 등 25만 원 상당을 훔쳤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호기심에 했다고는 해도 나쁜 짓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벌을 주는 것만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순 없지요. 무인가게를 보고 뭔가 깨달았다면, 그것만으로도 가게를 연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장성=이종행기자 golee@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2명 법정구속

광주지법 실형 선고

법원이 삼승 음주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병 부장



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차모(41·47·농업·광주시 북구)씨와 이모(47·농업·광주시 북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적용, 나란히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차씨와 이씨는 지난해 음주단속에 적발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면허마저 취소됐음에도, 지난 4월 각각 혈중알콜농도 0.174%와 0.198%의 만취상태로 취중 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공사업체서 금품수수

GS칼텍스 상무 영장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GS칼텍스 여수공장 상무 나모(51)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2005년부터 1월까지 여수공장 매립 공사업체 대표인 김모(여·43·구속)씨로부터 자녀의 미국 유학 자금 명목으로 8만달러(약 8천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GS칼텍스 여수공장 토목담당 이모(50)씨를 구속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나원침 (7272) 김중두



담뱃가게 간 거리 실제이용 도로 기준

○법원이 담뱃가게 간 거리는 보행자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결. ○전주지법 행정부는 26일 "담배사업법상 거리제한규정인 50m보다 가까운 곳에 기존 영업소가 위치해 있는데도 시가 새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해 준 것은 위법"이라며 공모(여·52)씨가 군산시장을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아파트 진입 도로와 인근 대로가 연결된 지점에 설치된 횡단보도로 보행할 경우 두 담배 영업소 간 거리가 77.5m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보행자가 아파트 내 도로로 바로 건물 경우 두 영업소 거리가 30m에 불과하다"고 판시. /연합뉴스